



코로나19도 끊지 못한 온정의 손길들

서귀포시 3억6998만원 성금·물품 채도 최근 3년 중 최고액... 작년 대비 35% ↑

그래도 추석은 따뜻했다. 추석을 앞두고各级各部门으로부터 사랑을 담은 정성이 답지했다. 서귀포시와 각 읍·면·동은 지난 9월 1~29일 사이 '추석맞이 사랑나눔 지원창구'를 운영했다.

운영 결과 기관과 기업·단체·개인 및 익명의 독자들로부터 모두 3억6998만원 상당의 물품·현금이 접수됐다. 지난 3년간 추석 명절 이웃돕기 창구 운영 결과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지난해 추석에 비해서는 35%인 9700만원이 증가했다.

90세의 강숙자 할머니는 서귀포시 주민복지과를 직접 방문해 100만원을 성금으로 기탁했다. 국가로부터 받는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을 조금씩 모아 마련한 성금이다.

서귀포시 축산업협동조합은 지난 달 18·23일 두차례에 걸쳐 양념 소불고기 및 등심·안심 등 2300만원 상당의 소고기 470kg을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35곳과 가정위탁아동 97가구를 위해 기탁했다.

익명의 독자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0kg들이 쌀 100포대(300만원 상당)를 서홍동주민센터에 기부했다.

서귀포시 공직자들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서귀포시 공직자들이 실시일반으로 모은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웃들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사랑 실천에 동참했다.

올해 모아진 이웃 사랑의 성금·물품은 서귀포시민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4649가구와 사회복지시설 74곳에 전달됐다.

서귀포시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희망복지지원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지역자원 발굴과 민간자원을 지속적으로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기탁·기부에 대해서는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760-2531) 또는 각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순복음복지관 소외계층에 음식 전달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은 지난달 29일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한가위 나눔행사(후원:H마트·(주)선인상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추석을 맞아 자원봉사자와 함께 다양한 추석음식을 만들어 지역사회 소외계층 65가정에 전달했다.

조영숙 관장은 "코로나19로 추석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만은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하나은행·금융감독원 해병대에 기부금

하나은행 제주영업본부와 금융감독원 제주지원은 지난 달 28일 지역 사회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을 통한 행복한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해병대 제9여단을 방문해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군부대의 코로나19 지원활동, 태풍피해복구, 대민봉사지원 등 각종 지역 내 봉사 활동을 하는 장병들의 사기 진작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대천동 에버트레이드(주) 마스크 후원

에버트레이드(주) (대표 오정호)는 지난 29일 용흥마을회의 추천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마스크 2000장(180만원 상당)을 기부했다.

오정호 대표는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마침 용흥마을회의 추천이 있어 대천동에 기부할 수 있게 됐다"며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4·3평화재단 생존희생자 등에 추석선물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은 추석을 맞아 4·3생존희생자 140명, 4·3희생자의 배우자 303명에게 추석맞이 선물을 전달했다.

이번 이벤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라 각종 4·3추모행사 및 위령제 등이 연이어 취소되거나 축소되면서 아쉬움이 많았을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물품은 고령의 생존희생자와 유가족들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준비했으며, 추석인사 편지와 함께 우편발송됐다.

아라동새마을부녀회 13년째 이어온 나눔



아라동새마을부녀회(회장 오영주)는 최근 아라동주민센터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써달라며 성금 5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에 기탁했다.

오영주 회장은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실시일반 모아 성금을 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라동새마을부녀회는 2008년부터 13년째 바자회 수익금을 기탁하는 등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서귀포수협 추석맞이 소라 드라이브 스루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미자)은 지난달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후원으로 '추석맞이 소라 드라이브 스루 행사'를 개최했다. 서귀포수협이 준비한 물량은 원물기준 약 5000kg에 달했지만 판매 시작 3시간만에 완판됐다.

특히 소라꼬치는 하레리이촌계 해녀들이 명절 제사상에 올릴 수 있도록 직조치로 만들어 특제소스와 함께 판매해 큰 호응을 얻어 40분만에 매진됐다.

동정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개소식 참석

◇양영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오는 7일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열리는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일도2동 코로나19 대응 방역소독

◇강민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6일 일도2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는 일도2동 코로나19 대응 방역소독에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방역활동

◇강철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오는 8일 연동동장협의회 및 연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과 함께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을 위한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다중이용시설 방역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신임 공보관에 고경호 전 언론협력비서관

개방형 공모 직위인 제주특별자치도 공보관에 고경호 전 언론협력비서관이 임용됐다.

제주도는 지난달 29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고경호 신임 공보관에게 임용장을 전달했다.

고경호 신임 공보관은 지난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제주일보사에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뉴스1제주본부에서 재직했다. 지난 2018년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에서는 언론협력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제주도는 "고경호 신임 공보관이 대외적으로는 제주의 가치 향상과 긍정 이미지 확산 등 종합적인 도정홍보 전달자로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주고 제주청소년연극제 최우수상



한국연극협회제주도지회가 지난 23~26일 실시한 제23회 제주청소년연극제 겸 제24회 전국청소년연극제 제주예선에서 영주고등학교가 '얼굴'로 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에는 '아름다운 사인'을 공연한 신성여고가 뽑혔다. 개인상 부문에서는 영주고 변아람 학생이 최우수연기상을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사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 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11,000원 보청기 제품비용 111,000원 후기 적합관리비용 20,000원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 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 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이면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들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청 광양사거리